

전은 '급여이체' 고객 정기적금 특판

0.3%의 추가 우대금리·금리 3년 기준 최고 연 3.5% 한도 계약액 기준 1000억원... 11월까지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만 18세 이상 개인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 정기적금 특판을 실시한다.

정기적금 특판은 급여 및 연금 등을 전북은행으로 이체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1인 1계좌에 월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급여이체 신규고객은 올해 1월부터 신규 가입일 현재 급여이체가 없는 고객으로 기간별 적용금리에 0.3%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며, 금리는 3년 기준 최고 연 3.5%이다. 한도는 계약액 기준 1,000억원으로 소진까지 판매 예정이다.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와 함께 월급 급여 수당 보너스 연금 등 급여입을 알 수 있는 조건이면 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이번 특판을 통해 다양한 수수료 면제는 물론 주거래 계좌의 혜택까지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만 18세 이상 개인 급여이체 고객들을 대상, 정기적금 특판을 실시한다.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오늘부터 47일간 5개 권역 10곳 설치...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오는 6일부터 9월 21일까지 47일 간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위해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둔다.

신고센터 접수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의 자진 사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과 같이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전화, 홈페이지(www.ftc.go.kr)접수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사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이 없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각 지방사무소에도 관내 주요 기업이 적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구한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추석 명절 즈음 자금 수요가 급증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그 어느때보다 크다"며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뿐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56건 274억원을, 올 설날에는 총 175건 317억원을 각각 지급 조치한 바 있다.

/김영태 기자

나는 노래들과 함께 그려내 좋은 평을 얻었다.

특히, 전북은행은 문화공연 관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역 이동센터, 시·군 드림스타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고, SNS 참여 이벤트, 페이스페인팅, VR체험 등을 실시해 참가자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전북은행 노시형 사회공헌부장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전북은행 메세나콘서트가 무더운 날씨를 잠시나마 잊게 하고 삶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상점가 활력 제고' 전통시장에서 점심먹는 날

전북중기청, 연말까지 지속 운영키로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지난달 27일 전주모래내시장 시장 상인회장 관계자들과 함께 2018 전통시장에서 점심먹는 날 행사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50여 기관단체도 전통시장에서 점심먹는 날 운영계획을 송부하여 기관별 참여를 적극 요청했다.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된 전주모래내시장에서 상인회장 및 시장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김광재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등 전북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상황이 순탄치 않은 가운데 전통시장에서 점심먹는 날 행사가 우리 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단체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전통시장·상점가 활력 제고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며 "작은 노력의 활동이지만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 전통시장·상점 상인들과 함께



소통에 나갈 계획, 지역 시민들도 명절과 지역 전통시장 방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 요청을 했다.

한편, '전통시장 점심먹는 날' 행사는 전북청 직원들을 4개조로 편성, 매주 1회씩(월4번) 전통시장에서 점심식사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온누리 상품권발행' 사업 홍보도 병행,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기 진작과 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자세한 문은 창업성장지원과 기업환경개선팀 김진수 팀장 이 세종 담당(063-210-6430) 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주임실 농어촌공, 구이저수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위해 간단급수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심덕섭)는 지난 1일부터 구이저수지 수해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간단급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들어 강수량 부족, 폭염이 지속되어 농업용수 공급이 문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주군 구이면 소재 구이저수지에 (목, 금, 토, 일) 급수 (월, 화, 수)은 단수 형태로 간단급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이저수지의 기능은 전주시 및 완주군 일원 2,731ha에 농업용수를 공급, 삼천천 및 전주천에 생태보전 환경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지사 관계자는 2일 현재 지사가 관리하는 87개소의 저수율은 평균 52%이고 구이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9%로 평년보다 10%가 부족한 상태, 따라서 금년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부족이하게 간단급수로 공급하지만, 지역 농업인 모든분은 농업용수를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전했다.

심덕섭 지사장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 저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지역 농업인들은 논 물꼬를 잘 관리하여 낭비되는 물을 방지하고, 농업용수를 아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고창군지부, 폭염피해 예방 농업인 현장 방문활동 추진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문식)는 지난 2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농가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취약계층 농업인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피해상황을 점검한 후 현장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날 명예이장 결연마을인 아산면 호암마을 고추재배농가를 방문하여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위로하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음료수와 과일 등을 전달하고 폭염으로 인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농업인들과 어르신들의 인부를 살렸다.

이문식 지부장은 "폭염상황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펼쳐 농업인의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취약계층 농업인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밤농협 사무소별 취약계층 농업인 위로방문, 농업인 행복복합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안부확인 및 피해 발생시 응급조치 이행, 폭염지역 필요물품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폭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은, 메세나콘서트 '슈퍼맨처럼'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전북은행 메세나콘서트 '어린이뮤지컬 슈퍼맨처럼'이 도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료됐다고 5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여름방학 및 휴가시즌을 맞이해 도내 어린이 및 가족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이번 공연을 마련했고 3일 동안 3천여명이 전북은행을 찾아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어린이뮤지컬-슈퍼맨처럼'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정효와 축구를 좋아하는 태민이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을 관객들이 신

나는 노래들과 함께 그려내 좋은 평을 얻었다.

특히, 전북은행은 문화공연 관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역 이동센터, 시·군 드림스타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고, SNS 참여 이벤트, 페이스페인팅, VR체험 등을 실시해 참가자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전북은행 노시형 사회공헌부장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전북은행 메세나콘서트가 무더운 날씨를 잠시나마 잊게 하고 삶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 '소외계층 초청 견학' 실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8월중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학생 등을 초청하여 경제교육 및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동 행사에서는 한국은행의 기능 및 역할, 화폐의 제조과정 등에 대한 경제교육을 실시한 후 문화활동(미술쇼, 전주 초코파이 만들기)을 진행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소규모학교 학생, 소외계층 어린이 및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초청 현장학습 외에

도 일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향후에도 내실 있는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경제교육 수요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사팀 과장 박의성, 조사역 방수연, 김성원(063-250-4083, 4085, 4086), 인터넷(http://www.bok.or.kr)에서 지역본부-전북본부로 접속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

1588 - 4477

www.jbbank.co.kr